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5.10.01.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, 유럽경쟁력기금은 기술 상용화에 집중할 것(9.30)

- 집행위원회는 차기 EU 예산안에서 연구혁신 자금은 전적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, 유럽경쟁력기금(ECF)은 배포(deployment) 활동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
- 집행위는 당초 호라이즌 유럽(1750억 유로)과 ECF(2340억 유로)를 긴밀히 연계해 연구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계획했으나, ECF가 중간 단계의 전환 연구나 전략 분야의 기초연구도 지원할 것이라는 추측이 배제된 것으로 보임
- ECF와 호라이즌 유럽은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이 별도로 유지되나, 프로그램 간 운영 방식은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. 이에 대한 논의 필요할 것
- 또한 ECF의 비경쟁력 방식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존재. 집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우수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나, 전략적 사안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. 유럽의회에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의 적용 방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옴

○ 집행위, 호라이즌 유럽에 추첨(lottery) 방식 도입 검토(9.23)

- 집행위는 일부 국가 연구재단들이 시범 도입한 방식을 참고하여 호라이즌 유럽에 추첨 또는 무작위(Randomisation) 자금 지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. 일정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제안서가 추첨에 들어가며, 순수한 동료평가(Peer-Review)가 아니라 무작위로 당첨자가 선정됨
- 이는 동등한 수준의 프로젝트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고 경쟁력 공모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줄이기 위함임
- 자하리에바는 추첨 방식이 현행 제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. 현재는 극히 작은 점수 차이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며, 컨설턴트가 제안서를 ‘다듬는’ 능력이 실제 연구의 임팩트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

- (기타)▲집행위, 연구기반 정책브리프 작성에 관한 실용적 조언 제공(9.30) ▲EU 경쟁력 이사회 회의, 호라이즌 유럽에 이중용도 포함에 관한 논의 진행(9.30) ▲집행위, 호라이즌 유럽의 기술 진행상황을 분석한 TRL 분석 보고서 발간(9.25)